

목양칼럼

RHF

2월 첫날, LA 한인 타운 인근 한 중학교에서 12세 여학생이 총격을 가해
 15세 남학생이 중태에 빠졌고 15세의 여학생은 손목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1월에만 하더라도 한국 밀양의 한 병원의 화재로 적잖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제천의 목욕탕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11월엔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총기사고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라스베가스의 한 광장에서 미국 최대의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펴 올라가자니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집이든, 길이든, 공공장소든...

교회도 안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경찰 서장은 어려울 때 이런 수칙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Run(피하라), Hide(숨으라), Fight(싸우라)"

Run: 어려움이 있을 때 밖으로 피할 길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Hide: 밖으로 피하지 못할 상황이면 적당한 곳에 자신을 잘 숨겨야 합니다.
 Fight: 안전을 해치는 적들과 싸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RHF는 안전을 위한 수칙일 뿐 아니라 죄의 공격에도 유효한 방식입니다.

Run: 죄의 유혹을 피하라.
 Hide: 피난처이신 주님 품에 숨으라.
 Fight: 죄와 끝까지 싸우라.

험한 세상, 우리 모두 RHF!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교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움/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교부 (646)789-111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반주 / 윤원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더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2월 4일
 제 44-5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9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용생 장로 3부 / 허경화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9:1-25	사회자
찬양	CHOIR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43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홍승룡 장로 4부 / 차상남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435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19:1-25 4부/ 에베소서 2:5-6	사회자
찬양 CHOIR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복음을 믿으라: 보좌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하나님이시여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제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갓즈윌 청장년부 헌신예배
2/7(수) 오후 8:00

**Ainos Youth Orchestra
제 11회 정기연주회**
2/11(주) 오후 4:00

수요 기도 예배

갓즈윌 청장년부 헌신 예배

오후 8:00 (2/7/18) 사회: 최원일 장로

예배부름	사회자
기도	송현규 집사
경배와 찬양	갓즈윌 청장년부
성경봉독	빌레몬서 1:1-7 사회자
말씀	김성국 목사
네 집에 있는 교회	
헌금	갓즈윌 여성 중창
봉헌기도	정소연 집사
영상	갓즈윌 영상팀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2월 헌신의 달 -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4(주) 선교회 월례회	2/7(수) 청장년부 헌신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2/9(금) 구역 예배	2/11(주) 아이노스 제 11회 정기 연주회
2/14(수) 아브라함,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	2/17(토) 한국학교 개강

알림

- 선교회 월례회**가 쿨장 바이블 칼리지 마친 후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심방일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F3, F10, DG, BK
2교구: F9, F10 SI 3교구: FM3, FM4, FM5, F1 4교구: WS, LI7 LI9 LI10
- Ainos Youth Orchestra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2/11(주) 오후 4: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이 2/18(주)부터 5주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2부 예배 후(11:45am) - 210호(학습), 213호(입교/세례), * 고등부 세례 학습: 부서에서 진행
* 유아 세례는 1회로 3/4(주) 오전 11:30(B06)
- 초등부 수련회 안내** 1) 주제: The Lord's Prayer 2) 기간: 2/18(주)- 20(화)
3) 장소: Spruce Lake Retreat Center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기간: 2/19(월)- 3/31(토) 오전 5시 45분
* 교통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교구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5기 영성 훈련(3/8 목) 안내** 1) 등록마감: 2/25(주) 2)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 열린유아원 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만 18개월-36개월(2/28로) 2)개강: 3/8(목) 오전 10:00
3)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3월 첫주까지 각 부서를 통해, 외부 - 3/6(화) 오전 10시, 선착순 30명
4) 수업: 매주 화, 목 오전10:00-12:00 5) 문의: 이명옥전도사 (646)327-6438
- 2/10(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영아, 유아, 유치부 (다음주: 40대 선교회)
- 가족기념 장학기금** 이승리 청년, 정영철 집사, 정경민 집사

새가족

조편남 (청장년 2F16) 김순덕 (한나 2F16) 리지용 (청장년 2F16, 리정연 - 영아)
오민호 (청년선교 1Y2) 김태리 (청년선교 4Y2) 김재우 (청년선교 3Y2)

교우소식

소 천 송동신 집사 (송승옥 집사 4LI3)의 부친 송화식 교우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식사제공 오늘 식사는 익명의 성도께서 제공하십니다.

임 명 진기웅 전도사 (English Education Pastor / 고등부 & EM대학부)
전성호 전도사 (청년 선교부)

금식기도자

주 / 김재일 김효순 이미셀 민미숙 이경미 정성숙 **월** / 최봉순 박영권 박식성 조복환 설희숙
화 / 최봉순 박영권 박식성 조복환 설희숙 **수** / 황상우 정기영 정경미 김명순 오영순 황선영
목 / 정기영 정경미 김명순 오영순 황선영 **금** / 김달수 장현정 길정애 조나영 계화자
토 / 김정미 장현정 조나영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89	러시아어 예배	28	영어부	29	중등부	62
2부 예배	395	청년 선교부	78	유아부	34	고등부	54
3부 예배	341	QBC	287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39
4부 예배	168	새벽 예배	901	중국어 교육부	19	교회 학교 예배	440
영어 예배	162	수요 기도 예배	175	유년부	90	주일 낮 장년 예배	1787
중국어 예배	326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79	주일 낮 총계	2227

2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헌신기도	전성호 장로	정성호 장로	이무근 장로	최원일 장로
책임권사	박대희권사	최정우권사	이지희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 갈렙 주일식사: 루디아(다음주: 한나/사라)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7)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515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9장 32-41절

우리는 세상의 거짓 종교와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과격한 행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옳은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데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것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것은 요란하지 않아도 그 생명력이 그치지 않는 법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320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의 훌륭한 점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면 돌파만을 주장하지 않고 피해 갈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만용을 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고집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생각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314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0장 7-12절

당시 드로아 성도들의 모임은 하루 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두고란 이름도 그 당시 하루 계층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온종일 고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늘 몸이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였고, 당시의 기름을 태워 밝히는 등불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여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처지는 그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모임은 어떻습니까? 드로아 성도들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냉난방이 완벽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만큼 진지한가요? 그들만큼 말씀을 듣기에 열정적인가요? 깨어나야 할 것은 유두고가 아니라 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212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0장 13-25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에베소 장로들과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이야기하며 장로들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저 그의 삶을 말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성실히 섬겼고, 위험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569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0장 26-38절

바울의 경고와 당부가 이어집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있게 될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사사로운 탐심에 얽매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잘 먹이는 것과 동시에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내 옆의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일을 소중히 처리할 줄 모르고 자기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주변을 희생시켜가며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리더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323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1장 1-14절

성도에게는 어려워도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 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방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하나 됨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길이라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막아서고 희생이 따르며 사람들이 만류한다 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